2019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 인문계열(인문사회)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 문제 3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5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가), (나) 현상이 암시하고 있는 미래 사회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논하되, (라)와 (마)를 활용하시오.

제시문

(가) 우리들 사회에는 매뉴얼적인 일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이나 서점의 점원 등은 철저하게 매뉴얼화된 말로 손님을 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일을 인간과 똑같은 휴머노이드로 바꿔놓아도 그다지 위화감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의 점원들은 비인간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야 하는가? (중략)
일본에서는 1983년도부터 8개년에 걸쳐 '극한 작업 로봇'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중략) 이들 로봇 모두에게는 인간에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명확하게 작업하는 것이 요구된다. 로봇들은 원격조작 지원을 받으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협동 방식으로 작업한다. (중략) 극한 환경은 분명 로봇에게도 혹독하다. 높은 수압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력 플랜트 내의 복잡한 통로를 능숙하게 걸어가 점검·보수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봇을 어떤 환경 속에서 조작하려고 할 때 설계자는 우선 그 환경을 모델화한다. 혹독한 환경이면 그것을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 도입하기 위해서도 환경을 모델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극한 환경이라는 것을 로봇 설계자가 인식한 시점에서 그 환경을 극한이라는 하나의 틀로 좁혀진다. 그 틀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로봇을 특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노우에 히로치카 외/박정희 역, 로봇, 『미래를 말하다』.

(나) 나는 어느 컴퓨터 회사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여행 안내서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모아서 여행 안내 센터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작업은 쉽지 않았다.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했으며 그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팀 전체가 온 힘을 다해 추진한 결과 우리 팀 전체가 상당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 우리의 프로그램을 장착한 컴퓨터가 수명을 다하는 날, 즉 새로운 세대의 컴퓨터에 자리를 내주는 날이 왔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실행되었다. 한두 시간 후에 우리는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흥미로운 세부사항들을 기록한 후, 슬프게 프로그램을 '종료시켰다.'

입케 박스무트 저/장병탁 외 역, 『커뮤니케이션』.

(다) 칼렙: 잘 모르겠네요. 전 여전히 적절한 실험 포맷이 뭘까,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화로만 에이바[1]를 테스트하는 건 뭔가 정해진 미로를 계속 빙빙 도는 느낌이어요. 마치 체스 게임만으로 체스 컴퓨터를 테스트하는 것 같거든요.

1) AVA, 인공지능 여자 로봇 이름.

네이든: 그럼 어떤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칼렙: 뭘 테스트하려고 하느냐에 달렸지요. 체스를 잘 두느냐를 알려면 게임을 직접 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체스 컴퓨터가 자신이 체스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잖아요. 아, 심지어 체스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지요.
네이든: 시뮬레이션이냐 실세계냐, 그것이 문제네.
칼렙: 맞아요. '인공지능과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이든: 제발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게나.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네. 어젯밤 내가 자네에게 물었지. 그녀(에이바)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고. 지금 질문은 이걸세. '그녀는 자네에 대해 어떻게 느낄까?'

영화『엑스마키나』중에서.

(라)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 인간 중심주의라면,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들도 내재적 가치나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은 탈인간 중심주의이다. 이는 다시 개체론적 탈인간 중심주의와 전일론적 탈인간 중심주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동물 중심주의는 전자에 해당된다. 벤담의 영향을 받은 실천 윤리학자 싱어는 감각을 지닌 모든 개체의 이익은 동등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인간뿐만 아니라 감각을 가진 모든 개체가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즉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개체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감각을 가진 동물까지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성민 외,『생활과 윤리』/정창우 외,『윤리와 사상』

(마) 의무론 윤리는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중략) 칸트는 도덕 법칙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언 명령의 형태로 제시한다. 그는 인간이 이성에 의해 정언 명령을 파악하고 이를 순수하게 따르려는 의지를 선의지라고 하였다. 칸트 윤리에서는 이러한 선의지가 동기인 행위만이 옳은 행위이다. 반면에 결과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더라도 개인의 이익 추구나 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다.
(중략) 공리주의는 행위의 동기보다는 이익과 행복이라는 결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주의 관점을 갖는 공리주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판단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행위의 정당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내면적 동기를 무시하여 그릇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도 쉽게 용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중략) 현대의 덕 윤리에서는 의무와 원리에 따른 행위 중심의 윤리를 비판하고, 품성과 덕성을 중시하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덕성 함양이 고립되고 단절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라는 구체적 맥락을 지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략) 덕 윤리는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처럼 규칙이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덕 윤리에서 행위자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김국현 외,『생활과 윤리』.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서 수많은 정보들에 피로감을 느끼는 세상이 되었다. 인문 사회 계열 수험생들은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직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정보들 사이에 숨겨진 이면, 정보들이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논쟁 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정도의 발명과 발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어, 인간 사회의 신념들까지 순식간에 바꾸곤 한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이란, '지금 존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구체화하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앞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분야별 전문 지식을 넘어 융합적 안목을 지녀야만 가능한 일이다. 사회의 각 분야 전반에서 이러한 인재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존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로봇'이라는 화제는 여러 교과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교과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주제이다. 이 주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사회에 대해 '상상'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성찰할 문제는 아니라고 간주되곤 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의 눈부신 발전으로 볼 때 이는 최신의 '시사적' 논제이자, 인간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철학적' 논제이다. 최근 철학계에서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여, 기술이 '인간의 인식'과 '사회의 구조'를 순식간에 바꾸어버릴 것임을 생생하게 예고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해 배운 교과별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해 배운 교과별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각 교과에서 조금씩 파편적으로 접했던 정보들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문제 상황을 재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범교과적인 사고가 가능한지, 추론 능력과 인문학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해설

(가)에서 로봇의 특징과 관련하여 논의 거리로 도출해야 화제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매뉴얼화, 모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매뉴얼'이라는 이 특징을 도출해 내기는 하였으나 로봇은 인간이 설계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만 정리한 답안이라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가)에서는 그간 인간 사회에서 요구되는 '매뉴얼화된 업무'를 로봇이 대체한다는 것은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간 어떻게 간주되어 왔는지를 성찰할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 읽어내어야 한다.

둘째, '고통'이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여 극한 환경에서 작업한다는 상황이 제시된 것을 첫 번째 화제어와 관련지어서만 읽어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매뉴얼화, 모델화'는 (가)의 첫 문단에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음에도, 왜 다음 문단에서 다시 '극한 환경에서의 모델화'를 줄줄이 설명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의문을 던지며 읽어내어야 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극한 환경에서의 로봇'에 대한 해석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극한 환경에서의 업무 역시 모델화 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고통 없이'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해석이 그것인데, 전자는 '패스트푸드점에서의 매뉴얼화된 일'과 동일한 정보를 지니므로 굳이 부각시킬 필요가 없으며 '고통'은 명시적으로 도출해 내어야 하는 화제어이다.

(나)에서는 인간인 '나'가 로봇을 온 힘을 다해 개발을 하고 훌륭한 로봇을 개발하였음에도, 새로운 로봇이 세대 교체를 해야 할 때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가) 제시문과는 달리 (나) 제시문이 로봇을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태도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읽어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로봇'의 일환으로 보고 나머지 제시문과의 관련성을 찾아내면 된다.

(나)에서 도출해야 하는 화제어는 '로봇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슬픔과 같은 감정'인데, 이로 인해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일반화된 문제 제기'를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기술되면 가점을 받는다.

(다) 대화 참여자들은 로봇이 얼마나 인간다운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기준은 달리 말하면 '인간성'을 돌아보는 기준이기도 하다. 첫째, 자의식 또는 자유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 둘째, 스스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가 그것이다. (가)와 (나)는 로봇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지만, 이처럼 (다)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준을 주면서, 이후 내용을 심화하여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라)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고하게 되었던 '탈인간중심주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재인식하여 로봇이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에서는 서양의 대표적인 윤리 이론인 의무론과 공리주의, 덕 윤리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관점들은 '행위 중심이되 행위의 동기를 중심으로 보는가', '행위 중심이며 행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가', 마지막으로 품성과 덕성을 강조하는 행위자 중심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각 이론적 관점에 따라 로봇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고, 그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제시된 관점 모두를 활용해도 되고, 일부만 활용하여도 된다. 다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다만 도덕적 배려의 양상이 각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각 관점에 따라 로봇은 인간과는 다른 존재 또는 비슷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논리적 도출 과정을 밝히면 된다.

3. 채점기준 및 참고사항

- (가)에서 설계자의 모델화에 따라 설계된 휴머노이드가 '인간다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한다는 것을 도출해 내었는가?
- (나)에서 로봇을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태도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읽어내고 있는가?
- (가)와 (나)를 종합하여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일반화된 문제 제기'하고 있는가?
- (다)에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도출하고 있는가?
- (라)에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는 결국 '인간성'을 들여다보는 문제라는 전제적 조건을 도출하고 있는가?
-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마)에 제시된 정보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유의사항]

논제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제시문에서 도출될 수 없는 의견들이 만약 실제 이론과 다르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다면 오히려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본 논

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과 관련된 의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확신을 지니는 태도는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논제들에서는 제시문의 정보들에서 많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발견해 내고, 그 도출 절차를 분명히 하며, 정보들을 재구성하여 논거로 활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4. 예시답안 및 예시답안에 대한 근거

(예시 답안)
사람 대신 혹독한 업무를 하거나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로봇은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혹은 상용화될 것이다. 특정 업무에 특화된 로봇, 더 나아가 인간에게 공감할 수 있는 로봇을 인간 사회에서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쟁점을 판단해야만 하는 순간이 곧 올 것임을 (가)와 (나)는 암시해 주고 있다.

칼렙과 네이든은 정해진 업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인지 로봇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면서, '인간다움' 판단 기준을 내세운다. 첫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로봇이 자율적으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제 쟁점은 다시, '기준을 충족하는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는 사회에서도 로봇과 인간은 구분되어야만 하는가'로 구체화 된다.

(라)에서 언급된 '탈인간중심주의'는 이 쟁점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전제가 된다. 인간만이 존엄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던 시대에는 동물의 이익과 고통은 배려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꺼이 인간의 식량이 되어주었던 동물을 지금은 '반려 동물'이라는 명명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마찬가지로 로봇과의 관계 역시 '탈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재해석되어야 할지 모른다.

인간과 로봇의 관계는 인간이 상당 부분 미리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설계자가 '모델화 목적과 수준'을 조절하고 결정할 수 있지 않은가. 즉, 로봇의 도덕 법칙을 칸트 모델에 따라 규정해 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 사회의 수많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위의 결과까지 예측하는 좀 더 유연한 판단력을 지닌 모델을 지향할 것인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까지 고려하는 덕 윤리를 모델링하기는 요원할 것이라 믿고 싶지만, 만약 그조차도 모델링이 가능하다면 로봇은 더 이상 로봇이 아닐 것이다. 지속적으로 바뀌어가는 '인간-로봇' 사이의 경계는 인간성을 무엇으로 보는가의 문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시 답안에 대한 근거)
이 답안에서는 주어진 정보들 사이에 숨겨진 이면, 정보 사이에서 함축하고 있는 논쟁점을 적절히 발견하고 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단지 (가)와 (나)를 요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탁월하다. (가)와 (나) 제시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지금 현 시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가)와 (나)의 내용을 깊이 있게 관련지으며 추론하고 상상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다)에서 보여주는 쟁점과 충분히 관련을 시킴으로써 논리적 상상의 한계선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가), (나)만으로 자연스럽게 논제에서 암시하고 있는 쟁점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첫 문단에서 제시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다) 제시문에서 도출해 내고 있다.

(라)에서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활용되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고하게 되었던 '탈인간중심주의'를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도덕적 배려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마)를 활용하였다. 이 답안에서는 (마)에 주어진 세 종류의 이론을 모두 활용하여, 인간이 로봇의 도덕적 판단 수준을 모델링 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미래 사회에서의 로봇과의 관계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답안에서는 결론적으로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어느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명확히 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대신 지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관련을 짓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과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문학적 통찰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초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